世宗特別
自治市議會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목 차

Ⅰ. 여행개요 3

Ⅱ. 방문국현황 5

1. 호주 현황 6

2. 뉴질랜드 현황 11

3. 방문국 주요 관광자원 17

Ⅲ. 방문국가별 주요제도 23

1. 복지제도 23

2. 평생교육 정책·제도 26

Ⅳ. 방문지 주요 연수내용 33

1. 캔버라(Canberra) 31

2. 시드니 총영사관 36

3. 시드니 시청·시의회 38

4. 타우포 지열발전소 42

4. 로토루아 시청·시의회 42

Ⅴ. 시사점 46

Ⅵ. 연수후기 51

Ⅰ. 여행개요

1. 여행목적

○ 선진 자치단체의 도시·환경·문화·관광정책 등 각종시책 등을 비교하여 우리시에 접목하기 위함

○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행정수도를 견학하여 어떠한 성장 동력이 있는지 벤치마킹하고자 함

2. 연수국가 : 호주(캔버라, 시드니), 뉴질랜드(로토루아, 오클랜드)

3. 연수기간 : 2012. 10. 30. ~ 11. 6.(6박 8일)

4. 연수단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연령	비고
계		15명		
산업건설위원회	부 의 장	김 선 무	52	
"	의 원	임 태 수	52	
"	"	진 영 은	63	
"	"	박 성 희	54	
"	"	고 준 일	32	
"	"	김 장 식	52	
"	"	이 경 대	54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 재 풍	58	
"	전문위원	임 의 수	57	
"	행정 6급	서 종 선	46	
"	행정 6급	김 희 정	48	
"	행정 6급	최 홍 규	42	
"	행정 7급	전 성 수	36	
"	기능 6급	이 종 만	57	
정책기획관	행정 5급	이 윤 호	48	

5. 주요일정

일자	출발지	교통	도착지	시 간	세 부 일 정
1일차 (10.30) (화)	조치원 인 천	전용버스 KE121	인 천 기 내	13:00~19:00 19:05	· 도착 후 출국 수속 · 이동(인천 → 시드니)
2일차 (10.31) (수)	시드니 캔버라	전용버스	캔버라 시드니	10:00 18:00	**· 캔버라 도시계획관 관람 및 계획도시 견학** **· 콕킹턴 그린가든 도시공원시설 견학** **· 국회의사당. 전쟁박물관 등 견학**
3일차 (11.1) (목)	시드니	전용버스	시드니	10:00 18:00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견학** **· 시드니 총영사관 방문 (브리핑)**
4일차 (11.2) (금)	시드니	전용버스	시드니	10:00 18:00	**· 시드니 시청. 의회 방문** · 시드니 동부 더블리 페이지 견학 ·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견학
5일차 (11.3) (토)	시 드 니 시 드 니	전용버스 NZ106	시드니 오클랜드 로토루아	08:30 18:35	. 와이토모 반딧불 석회동굴 견학 - 자연 보존의 중요성, 관광상품화 - 훼손방지를 위한 휴식년제 시행
6일차 (11.4) (일)	로토루아	전용버스	로토루아	14:00 18:00	· 로토루아 지열 부존자원 견학 · 마오리 민속문화 견학 - 관광 자원화 사업
7일차 (11.5) (월)	로토루아	전용버스	오클랜드	10:00 18:00	**· 로토루아 시청, 복지, 환경 시설 견학** **. 레드우드 산림수목원 견학** **.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공원 참배**
8일차 (11.6) (화)	오클랜드 인천	KE130 전용버스	인 천 조치원	08:55~18:00 18:00~22:00	· 이동(오클랜드→ 인천) · 조치원 도착

Ⅱ. 방문국 현황

국 가	방문국 주요 특징
호 주	호주의 역사는 몇만년 전부터 이곳에 거주하던 원주민인 애버리진으로 거슬러 올라감. 이들은 고대인류와 DNA가 가장 비슷한 종족이기도 하나, 문자로 기록된 이 나라의 역사는 17세기경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처음으로 이 나라를 목격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됨. 1770년에 영국의 선장 제임스 쿡이 본격적으로 이곳을 탐험한 후, 1901년 1월 1일에 영연방의 일원이 되었고 얼마 후에 군대가 창설됨. 1931년 12월 11일부터 웨스터민스터법의 적용을 받게 됨.
뉴질랜드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찾은 유럽인은 1642년 남섬 서해안에 도착한 네덜란드의 아벌 타스만(Abel Tasman)이었고, 타스만 이후는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며, 1769~1777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답사함. 1840년 마오리족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영국에 양도하는 **와이탕기 조약을 체결,** 이민자 증가. 1852년에는 뉴질랜드 헌법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들어서게 됨. 영국은 마오리족을 영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을 통해, 1870년부터는 인종 분쟁이 끝나고 마오리족의 영국화가 시작. 1907년 영국의 자치국이 되었다가 1947년 독립. 제1·2차 세계대전 때에는 영국과 함께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 참전 활약.

<우리나라와의 관계>

○ 호주 및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지원한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양국과는 각각 60년대 수교 이래 정치, 경제통상, 문화 등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유지

○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국제현안에 있어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 구축을 희망하고 있어 이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1 호주(Australia)

○ 정식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Commonwealth of Australia) 북쪽은 티모르해, 동쪽은 산호해·태즈먼해, 남쪽과 서쪽은 인도양으로 둘러싸임

○ 퀸즐랜드 등 6개주를 비롯 준주인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 노던준주 특별구역으로 노퍽섬, 매쿼리섬, 로드하우스섬, 크리스마스섬, 허드섬·맥도널드 군도, 코코스(킬링) 제도, 산호해(珊瑚海)군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령 각주와 특별구역은 다시 722개의 작은 지방자치구역으로 구분

□ 정식국명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　　도 : 캔버라 (Canberra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면　　적 : 7,682,300㎢(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78배** / 세계에서 6번째)

□ 인　　구 : 약 2,240만명- 한국 46%수준

□ 민　　족 : 영국과 아일랜드계(80%), 원주민(2%), 아시아계 등(18%)

□ 언　　어 : 영 어

□ 종　　교 : 가톨릭(26%), 성공회(21%), 기독교(21%) 등

□ 기　　후 : 일반적으로 북부 연안은 열대기후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며, 중남부 연안은 온대~냉온대기후로 사계절. 대륙 중앙부는 사막기후

□ 정　　치 :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6개 주정부, 2개 특별구, 연방 정부, 의회(양원제)로 구성

□ 독　　립 : 1901. 1. 26

○ 1788년 영국이 처음 유럽인 정착지 개척 이후 영국의 식민지 상태로 있다가 연방으로 발족

□ 평균수명 : 82.8세(OECD 세계 1위), 뉴질랜드(80.6세, 세계 11위), 한국(79세, OECD 세계 21위) - '11년기준

□ 1인당GDP : 55,590$(2010기준)- 세계 7위로 한국의 약 2.7배

□ 교역규모 : 수출(2,124억$), 수입(2,016억$) / 2010기준

□ 주요자원 : 석탄, 철광, 구리, 은, 우라늄, 다이아몬드, 천연가스, 석유

□ 국교수립 : 1961년 10월(수교 51주년)

○ 교민 138,507명(2011년 기준)

□ 정치 및 정부체계

○ 호주는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의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권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자치지구)에 분산되어 있음

□ **2개 특별지역과 6개주로 편제**

○ 특별지역

- 수도 특별구역,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로 구성

○ 6개주

- 퀸즈랜드(**Queensland**),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 빅토리아(**Victoria**), 남호주(**South Australia**)
- 서호주(**Western Australia**), 타스매니아(**Tasmania**)

○ 연방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하고, 잔여권한은 주정부에 귀속하되, 조세, 경쟁정책, 노동법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이 중첩되는 분야는 쌍방 간 협상과 타협에 의해 행사함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산내용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헌법은 영국과 달리 성문헌법이나, 미국과 달리 행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의 신임, 부처 운영에 대한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내각의 연대책임이라는 3가지 관습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 의회는 호주 연방정부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데, 하원은 영국처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상원은 미국과 같이 각종 법률안(예산안 포함)에 대한 권고와 동의의 권한을 보유하여 하원과 상원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경제현황

○ 호주는 국내 뿐 만이 아닌 외국자본의 투자도 많을 정도로 금, 납, 아연, 보크사이트, 철광석,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여 호주 국토의 2/3가 목축지이고 그 중 90%가 방목지임

○ 양털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농업과 목축업이 국민총생산의 8%, 수출의 50%를 차지하며, 여기에 밀과 사탕수수, 목화의 수출이 호주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고, 제조업도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의 경제는 자국의 자원에 의지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공업부문의 발전이 현저하여 현재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기계, 자동차, 화학, 건축자재, 컴퓨터, IT 등이 특히 발달하였음

□ 역 사

○ 1600년 : 포루투칼, 스페인, 네덜란드인 호주대륙 존재 인지
○ 1770년 : 캡틴 쿡의 "Endeavour 호" 도착
○ 1788년 : PHILLIP 선장 인솔하에 영국인 시드니 이주
○ 1823년 :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6개 식민지)
○ 1851년 : NSW 금 발견, 골드러쉬로 이민 급격 증가
○ 1901년 :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 설치
○ 1927년 : 캔버라로 연방 수도 이전
○ 1973년 : 백호주의 정책(Dictation Test) 폐지

방문도시 현황

<시드니(SYDNEY)>

- 위치 : 뉴사우스웨일스주(州)의 주도(州都)
- 특성 : 1842년 시제(市制)가 시행되었고, 1851년 부근의 배더스트에서 금이 발견된 후로 인구 급증
- 면적 : 4,070㎢
- 인구 : 417만명

○ 시드니는 호주 개척의 출발점이 된 도시로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며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의 주도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에 세워진 시드니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보다 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전세계 도시평가에서도 근간에 연속 3년간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 호주의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남위 34°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캔버라, 북쪽으로는 포트스테판과 이어짐. 세계 3대 미항인 시드니항과 코발트빛 바다와 어우러지는 오페라하우스가 그 위용을 자랑하며, 왼쪽으로는 '코트 행어'라는 별명을 가진 하버브릿지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맞은 편 만으로 뻗어있음

○ 시내를 걸으면 고층 빌딩이 빽빽히 서있는 지대도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는 푸드 타운(food town)이 많이 있고 시드니 타운면적은 약 4,070㎢이며, 타운주변 교외지역까지 합치면 2,103 ㎢라는 엄청난 면적으로, 인구에 비해 땅이 넓기 때문에 공원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음. 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시내중심가를 벗어나 바다쪽 교외로 나가면 본다이 비치나 맨리 비치 등 아름다운 전망과 경치를 자랑하는 해변이 있어 해수욕이나 서핑을 즐길 수 있음

<캔버라(Canberra)>

▪ 위치 :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 ▪ 특성 : 호주의 수도 ▪ 면적 : 807.7㎢ ▪ 인구 : 35만명 ▪ 기후 : 건조한 대륙성기후	

○ 캔버라는 호주의 수도이자 오스트레일리아 내륙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8번째로 큰 도시이며. 이 도시는 호주 수도 준주의 북쪽 끝에 있으며, 시드니에서 남서쪽으로 280km, 멜버른에서 북동쪽으로 66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를 흐르는 몰롱글로강(江) 연안에 위치한다. 기복이 완만한 평원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발고도 450~480m 지점에 있어 연평균기온은 13℃이다. **기하학적 가로망이 뻗어 있는 전형적인 계획도시이다.** 목장·농경지로 이용되어 왔으나 1908년 수도로 선정되어 전세계에서 공모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1913년에 착공, 1927년에 멜버른에서 수도를 옮겼다. 시가지는 동서로 흐르는 몰롱글로강을 이용한 인공호를 중심으로 여러 모양의 광장과 환상(環狀)·방사상·바둑판 모양의 가로가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음

○ 호수 남쪽에는 연방정부 의사당, 각 관청이 있고, 이것들을 끼고 주택 지구가 전개된다. 북쪽은 교육 지구·시청사 지구를 형성하며 배후에는 공업 지구·주택 지구가 발달되었다. 캔버라대학(1930)을 비롯하여 사관학교·국립도서관 외에 블랙산 기슭에는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1940)이 있고, 스트로믈로산(山)에는 천문대가 있다. 이 밖에 동물원·박물관·병원 등의 문화 시설도 정비되어 있다. 주위는 밀 재배, 가축 사육이 활발한 농업 지역임

2 뉴질랜드(Newzealand)

○ 뉴질랜드는 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가이다.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산, 강, 깊고 맑은 호수, 그리고 문명에 때 묻지 않은 넓은 휴양림과 길게 뻗은 해변, 대표적 동물 키위와 다양한 여러 동물들이 있음

○ 또한 뉴질랜드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래포츠-하이킹, 스키, 레프팅, 번지점프 등으로 유명함

□ 국가명 : New Zealand(마오리어: Aotearoa)

□ 수 도 : 웰링톤(Wellington, 33만 명)

□ 면 적 : 268,130km^2(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

※ 일본이나 영국과 비슷한 규모의 면적임

□ 인 구 : 약 439만명(한국의 부산광역시 인구 358만명임)

□ 인 종 : 유럽인 68%, 마오리족 14%, 아시아계 9.2%, 폴리네시아인 6.9%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종 교 : 기독교(성공회 25.7%, 카톨릭 14.4%, 장로교 16.5%)

□ 기 후 : 온난한 해양성(연평균 10-15°C)

○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정반대의 기후로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로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다. 날씨가 자주 바뀌기는 하나 전국에 걸쳐 일조량과 강우량이 충분하다. 여름에는 아열대성 기후가 되고 겨울에는 남섬 남부 알프스에 눈이 많이 내린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때는 1-2월이며 가장 추운 때는 7-8월이다.

○ 연평균 기온은 북섬의 오클랜드가 15.1°C, 남섬의 남단 인버카길이 9.8°C이며 연교차도 대략 8~9°C로 한서의 차는 크지 않다.

□ 정치 및 정부체계

○ 뉴질랜드의 정치제도는 몇 가지 특성을 가미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식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뽑힌 단원제 하원 국회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성되며 이는 **수도 웰링턴**에 있다. 성문헌법은 결여되어 있지만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은 법률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오늘날의 뉴질랜드는 정부의 운영에는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음

○ 영국 국왕을 대표하는 총독은 국가의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각종 의식과 관련된 임무, 국회소집 그리고 장관의 임명 등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은 실시되기 전에 반드시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선은 매 3년에 한 번씩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음

○ 뉴질랜드는 비례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정당에 한표, 선거구에 나온 후보자에게 한 표씩을 가지게 되지만 정당표가 국회의 구성

○ 주요 두 정당은 중도 좌파인 노동당과 우파인 국민당이 있다. 총선 후에 내각이 구성되며,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임명된 장관들로 구성된다. 이 장관들은 의회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위원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주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고 정부지출에 대한 결정을 하며 행정을 관장함

□ 뉴질랜드 지방자치 제도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독립, 자율적으로 운영

○ 1989년에 정비된 지방정부는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Regional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Territorial(시·군에해당), Special Authority (Community boards와 Authorities)로 구성

○ **Regional Council : 총 12개로 북섬 8개, 남섬 4개**

북섬 : Northland(8명), Auckland(13명), Bay of Plenty(1명), Hawke's Bay(9명), Taranaki(10명), Manawatu-Wanganui(11명), Wellington(14명)

남섬 : West Coast(6명), Canterbury(13명), Otago(11명), Southland(11명)

※ 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

○ **Territorial Authority(최소인구 5만명 이상)**

실질적인 지방조직으로서 15개의 City Council, 58개의 District Council, 1개의 COuntry Council(총 74개)으로 구성

○ **Special Authority**

Special Authority로는 154개의 Community Board와 6개의 Special Authority Board 존재

Community Board는 4~12명의 멤버로 구성되고, 시의회 임명이나 직접선거로 구성되며, 지역주민 권익 옹호가 주요 기능

공항 관리공단, 병원공단, 전기공사, 관광공단, 보건공사 등이 Special Authority Board

□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 : 1,324억불('09), 1인당 GDP : 31,000불

○ 수·출입 현황 : 수출 286억불, 수입 290억불

○ **수출 : 대부분 농축산물 중심의 제1차 산품**

- **낙농품, 식육, 임산물, 어류, 알무미늄, 기타**

○ **수입 : 공업제품(80%)**

- **기계류, 자동차, 전자기기, 연류, 섬유품, 기타 등**

□ 산업구조

○ 1차 산업중심

-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낙농 및 식품 가공업과 알루미늄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 조립생산에 불과하여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임

- 뉴질랜드의 52%가 목초지인 관계로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총수출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육류, 양모, 원피 및 낙농제품이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관광업의 높은 비중

- 뉴질랜드 방문객은 2008년 약 246만명 수준으로 관광수입은 약 60억 뉴질랜드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역 사

○ 마오리족 이주

- 600~1,000년전 폴리네시아로부터 마오리족이 이주 및 정착
- 18세기말까지 석기시대 문화 유지

○ 와이탕이 조약 체결

- 1840년 2월 영국정부는 마오리족 추장들과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여 뉴질랜드 척식회사를 통해 식민지 개척함
- 1907년 영국자치령 지위 획득
- 1931년 영연방 회원국 가입

※ 와이탕이 조약 주요내용

-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 이양
- 부족장 소유의 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 보장,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
- 1931년 영연방 회원국 가입

방문도시

<오클랜드(Auck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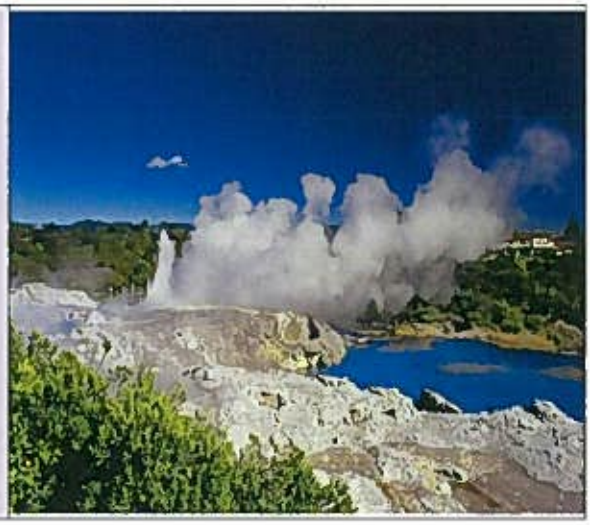
▪ 위치 : 뉴질랜드 북섬, 북부 태평양 연안 지역 ▪ 특성 : 뉴질랜드 최대도시, 수상 스포츠(요트) 중심지 ▪ 면적 : 5,600 ㎢(뉴질랜드 : 270,534㎢) ▪ 인구 : 146만명, 190개 인종 ▪ 기후 : 온난 해양성기후	

○ 오클랜드는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4분의 1이상인 약 146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이자 교통, 경제, 문화의 중심지임.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뉴질랜드를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항이 오클랜드 국제공항이기에 북섬의 관문역할을 하는 도시로 많은 해외 여행자들에게는 뉴질랜드의 첫인상으로 기억되는 도시임

○ 오클랜드는 1840년부터 수도가 웰링턴으로 옮겨가는 1865년까지 25년간 식민지 시대의 수도였으며 '오클랜드(Auckland)' 이름의 유래는 25년간 식민지시대 당시 뉴질랜드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홉슨(William Hobson)이 그가 존경하던 당시 인도 식민지의 총독이자 당대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오클랜드경(Lord Auckland 1784~1849)의 이름을 따서 지었음.

○ 문화적으로 오클랜드는 전통적인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인들의 이주로 인한 유러피안 문화의 흡수,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진출로 인한 아시아 문화의 유입 등으로 여러가지 문화가 별다른 트러블 없이 혼합되어 우호적인 문화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음

<로토루아(Rotorur)>

▪ 위치 : 뉴질랜드 북섬, 북부 태평양 연안 지역 ▪ 특성 : 마오리족 문화의 중심지로 뉴질랜드 최대 관광도시 ▪ 면적 : 2,615㎢(뉴질랜드 : 270,534㎢) ▪ 인구 : 66,000명(대부분 마오리인)	

○ 북섬의 중앙, 로토루아 호수와 타라웨라 산을 끼고 발달한 도시 로토루아는 뉴질랜드에서 11번째 가는 규모와 인구 66,000명의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임. 뉴질랜드 전역을 뒤덮는 화산지대 중 북섬의 중심인 이곳에서 방문객을 제일 처음 반기는 것은 유황 냄새로 이곳의 다른 이름인 **'유황의 도시'**를 떠올리게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솟구치는 간헐천과 뿌연 증기 가득한 온천 호수, 온천폭포 등의 풍경들은 살아 있는 지구의 안쪽 세계를 상상하게 함.

○ 로토루아 지방은 와이카토 강을 시발로 하는 로토루아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호수는 14세기 중반 하와이키에서 카누를 타고 항해해 온 오호마랑이 부족의 후손인 이헹아가 발견하였으며 '두번째 호수'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임

○ 현재 로토루아에는 약 5천명의 마오리인들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마오리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중심지이며, 온천과 간헐천, 머드풀과 지열로 끓어오르고 있음. 방문객들은 호텔에서 마오리족의 민속춤인 하카춤을 감상하며 그들의 독특한 식사인 항이식을 즐길 수 있음

3 방문국 주요 관광자원

호 주

▢ 블루마운틴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숲이 푸르게 보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약 1,000m대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에 어우러져 빚어 내는 푸른 안개현상으로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이곳에는 1800년대부터 석탄이 많이 생산되던 카툼바탄광이 있었는데 연료 스타일이 바뀌면서 폐공이 되었었는데 그러한 현실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교육자료와 볼거리로 활용하고 있었다.

○ 특히, 폐광된 채광회사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직접 석탄 채굴시 사용했던 궤도열차를 복원하고 개보수하여 놀이시설 형태로 꾸며 관광열차로 만들어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석탄 산업의 화석을 매치시켜 관광상품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관광 자원에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블루마운틴

▢ 오페라하우스

호주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1973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에 의해 정식 개관되었음. 1957년 국제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덴마크의 건축가 욤 우촌에 의해 탄생되었으며, 정말로 한폭의 그림과 같았다.

오페라하우스 입구에 해변과 조화된 곳에 간이 까페테리아와 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멋진 팝과 재즈가 연주되는 가운데 연인과 또는 가족과 함께 주말과 휴식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 보였음

▢ 하버브리지

싱글아치(single arch)형 다리중에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긴 다리로 시드니항의 상징. 해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가 약 59m인 이 대형 다리는 마치 옷걸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낡은 옷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마제스틱 크루즈 선상에서 보이는 하버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의 그림은 쾌속정과 요트, 유람선, 빌딩숲이 전경과 어우러져 시시각각 멋진 모습들로 변하여 다가왔다.

하버브리지

▢ 세인트 메리성당

기하학적으로 고딕양식의 커다란 석조건물인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시드니 시내의 중심인 하이드파크 북동쪽에 세워져 있음. 이 성당은 역사적으로나 그 중요성 면에서나 남다른 성당으로 시드니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고 있음.

▢ 시드니 수족관

높이 15m, 길이 140m의 거대한 파도 모양의 수족관이다. 바다속의 신비한 모습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달링하버 오른쪽에 위치한 바다 밑으로 설계되어 있음.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중생물관 중 가장 다양한 어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류만 약 5천여종의 해양생물들이 대형수족관 및 50여개의 크고 작은 수족관에 전시되고 있음.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진 수중 터널을 걸어가면서 수족관을 관람할 수 있다. 터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드니 근해의 해양생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먼 바다의 어류들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 와이모토 동굴

와이토모(Waitomo)는 오클랜드의 남쪽 200km 지점에 위치하며, 석회암 지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여러 종유 동굴이 있는데, 이곳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독특한 빛을 발생시켜 유명한 관광자원이 되었음.

○ 석회 동굴에 물이 흐르고 있으며 특히 반딧불처럼 불빛이 나는 곤충이 서식하고 있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음. 석회동굴의 석주나 석순의 형상. 규모등은 우리나라의 고수동굴이나 천동굴, 환선굴에 비교되지는 않지만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음.

○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관광객들의 사진촬영시 후레쉬의 빛과 소음등이 곤충에게 이롭지 못하여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곤충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는 조명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사진촬영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줄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무동력 보트를 타고 관광객들이 그 신비로운 장면을 움직이며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 와이토모 동굴의 체험은 참으로 특이하고 **신비한 가치있는 상품**으로 생각되며, 동굴은 원주민들 소유로서 그들에게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함.

☐ 레드우드 수목원

로토루아 근교 레드우드 수목원(Redwood Grove)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 차 있어 들어가는 순간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삼림욕장이며, 조용하면서 원시림 그대로의 느낌이 나는 곳으로 쥬라기 공원, 아바타, 킹콩 영화 촬영지이기도 하다.
세계 2차 대전에서 희생된 뉴질랜드 인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켈리포니아산 레드우드를 들여와서 조성된 숲으로 수목이 우거진 숲속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음.

☐ 테푸이아

로토루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지열지대이자 마오리 문화공간. 포후투(Pohutu)라고 하는 가장 멋진 간헐천(Geyser)과 마오리족의 미술 마오리 마을, 키위하우스 등이 함께 있음.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3km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며, 로토루아에서 가장 큰 지열지대로 마오리족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가장 볼 만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커다란 지열지대에 다양한 모양의 온천이 모여 있는 간헐천이다. 수증기가 피어난 지열지대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길을 따라 가다보면 뜨거운 물이 끓는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와 비슷한 연못이 보인다. 이곳을 지나 직진해서 가다보면 이곳의 상징인 간헐천 지대가 나온다. 그 중에서도 포후투 간헐천은 한시간에 한번꼴로 분출하는데

20 - 30m의 높이로 연기와 함께 뜨거운 물을 분출시키는 장관을 연출하는 큰 간헐천이다.

입구에서 입장권을 사들고 안으로 들어가면 마오리 마을의 복원광장이 나온다. 마오리 집회장과 전투용 카누 등이 전시되어 있는 마오리 예술공예관은 마오리 민속촌 구실을 한다. 바로 옆에 공예학교가 있어 목조각 작업풍경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

▢ 아그로돔 농장

양쇼가 펼쳐지는 테마공원으로 로토루아 시가지 북쪽 10km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19가지 종류의 양과 하루에 3번 귀여운 양들의 쇼와 양털깍기 시범, 목양견들의 양몰이 쇼도 펼쳐집니다. 소 젖을 짜고 새끼 양에게 우유를 먹이는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그 외에 헬리콥터 비행을 비롯하여 번지, 자유낙하 익스트림 등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쇼를 진행하는 사람의 유머와 재치로 즐겁게 관람할 수 있으며 설명은 세계의 언어로 통역되는 이어폰을 주기 때문에 듣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받은 바 있는 양쇼는 19종류의 챔피언 양들의 소개와 보웬테크닉을 이용한 실제로 양털깎는 모습, 눈빛으로 양몰이 하는 개(스트롱 아이헤딩 개)와 강하게 짖으면서 양을 모는 개(헌터웨이 개)를 통해 양몰이의 진수를 볼 수 있으며, 소 젖짜기와 아기양 우유 먹이기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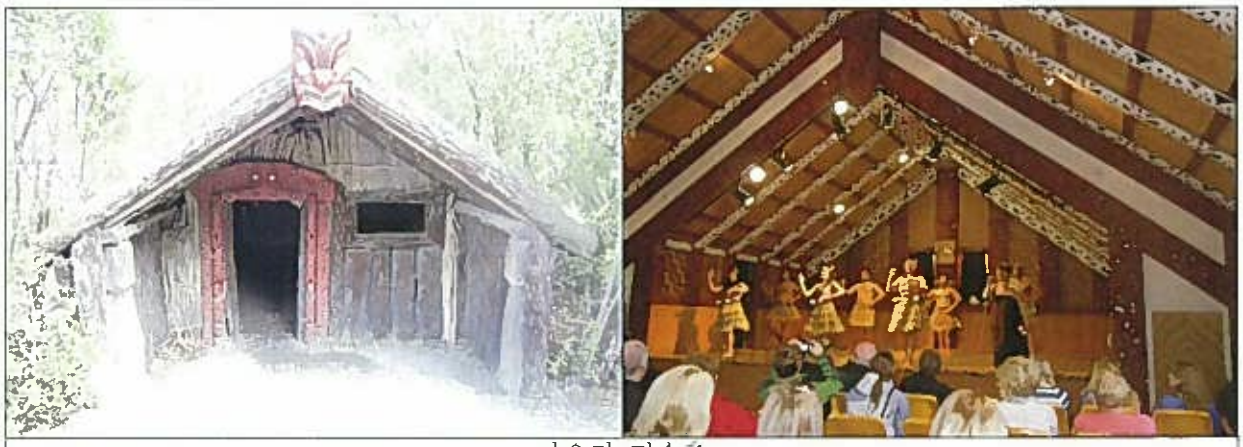
▢ 마오리 민속촌

마오리족의 전통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로 로터루아 시내에서 차로 5분 거리의 페어리 스프링스 로드(Fairy Springs Road)에 있다. 미타이 집안이 마오리 부족의 과거, 조각, 문신 예술인 타 모코(ta moko)를 보여주는 민속공연을 비롯해 마오리 무기류, 전투 전시물, 포이춤(poi dance), 하카춤(haka), 와이오휘로천(Waiowhiro stream)을 타고 내려가는 고대 마오리족 전

투용 카누인 와카(waka) 등 정통 마오리 문화를 보여준다.

마을을 들어서자 옛날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주거형태와 회의실 건물이 보존되어 있었고 일부 생활용품의 제작 방식을 선보이고 있었다. 특히 배를 불룩하게 내어밀고 혀를 길게 내어 뺀채로 칼을 쥐고 있는 익살스럽기도 하고 험상궂기도 한 형상들이 눈에 많아 띄었는데 목조 건물의 기둥이나 석가래등에도 조각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마오리족 군사들의 형상이라고 했다.

또 건물 내부와 처마등에 우리나라 목조건물의 단청이나 오방색처럼 규칙적인 문양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뉴질랜드의 국목인 고사리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다. 마오리 민속촌을 거쳐 다른 지방을 다닐때에도 각종 홍보물이나 시설물등에 그 고사리나무 문양의 디자인을 상당하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마오리족의 문화가 뉴질랜드 전체에 뿌리내려 있고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도 느껴진다.



마오리 민속촌

Ⅲ. 방문 국가별 주요 제도

1 복지제도

호주의 복지제도

○ 호주는 1908년에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어 가장 오래된 국가 중의 하나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의 연금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 또는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호주의 경우 노령연금제도는 전액 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전체노인의 75% 이상이 이 연금제도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음.

○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시설보호와 지역보호 가운데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판정하는 지역단위의 '노인보호평가팀'을 운영하는데 이 팀은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노인보호평가팀은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고,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의해 관리운영됨. 시설보호, 지역보호 중 노인의 신체, 심리, 의료 및 사회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결과에 따라 어느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적절한가를 결정함.

○ 호주전역에는 127개의 노인보호평가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 평가함.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보호평가팀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노인을 입소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음.

○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에는 '가정 및 지역사회 보호서비스 프로그램과 '시설보호 노인대상 가정보호확대 패키지'가 있음.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프로그램에는 가정요양서비스, 대인서비스, 휴식

보호서비스, 가사서비스, 식사배달과 교통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정부 및 지역정부가 재정을 지원함.

○ 노인주거시설에 입주한 노인들의 세대당 주택임대료는 1인용의 경우 매월 약 200달러, 2인용인 경우는 약 320달러임.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의 입소비용은 1인당 월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인데, 의료보험법에 의해 간병, 간호, 치료비 등 상당부분을 국가가 부담함.

○ 호주의 의료체계는 일반 진료의(GP), 전문의(Specialist), 병원(Hospital) 순으로 나뉘어짐. 따라서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 대개 일반진료의의 진단서가 없이는 바로 전문의나 병원에서의 진료가 불가능함. 또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국 에서 함부로 약을 구입할 수 없음

뉴질랜드의 복지 제도

○ 1938년 뉴질랜드 정부는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사회안전보장법의 통과와 함께 사회책임제도의 새장을 열었다. 최초로 국가가 보건과 수입유지, 일반복지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조 조치를 제공해 준다.

○ 하지만 1989년 사회복지부는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도록 통제를 하게 되었다. 특히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24개월이 지나야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다.

○ 뉴질랜드는 호주, 영국, 아일랜드, 저지, 구언시, 그리스 및 화란과 일부 혜택 수당은 한 국가에서 상대국가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 뉴질랜드에서 노령연금이나 퇴역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 경우 그 수당 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노후연금〉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뉴질랜드의 합법적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여야 하며, 20세 이후 총 10년간 거주하였거나 50세 이후 총 5년간 거주를 했어야 한다. 또한 연금 수혜자는 자신의 상황과 소득에 따라 연금 외에 장애수당, 숙박 보조수당, 가족수당, 생활보조수당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로원 수당〉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살고 있으며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거나 노후연금으로 지불하고도 부족할 경우엔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소득과 다른 자산 여부를 조사한 후에 지불한다.

〈가족수당〉

뉴질랜드에 영주권자로써 이민 온 후 24개월 후부터 받을 자격이 된다. 연간소득이 NZ Income Support Service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지 않으며, 18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가진 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각종 수당을 받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Family Support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수당〉

16세 이상의 학생이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전문학교, 교육 대학교에서 full-time으로 12주 이상 주 20시간 이상 수강 시 지급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25세 이하의 학생은 부모의 소득 여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른 항목으로 benefit을 받을 경우는 제외된다.

〈청소년수당〉

만 16,17세 중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지급된다.

〈과부수당〉

남편이 사망하고 과부가 된 경우 뉴질랜드에 살고 있을 경우에 지급된다. 자녀수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평가한다.

〈직업보조수당〉

만 16세 이상으로 독신이며 full-time으로 직장경력이 있거나 대학이나 기술

학교에서 학생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26주까지 보조수당을 제공한다.

〈실업자수당〉

8세 이상의 사람이 계속 직업을 찾고 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해당된다. 영주권자로써 24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장례비용수당〉

개인의 소득을 평가한 후에 장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병자수당〉

중병, 만성 영구적인 병자, 사고, 지체 부자유자, 장님 등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정적 지급

〈육아보조수당〉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5세 미만의 자녀를 놀이방이나 유아원에 보낼수 있도록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수당

2 평생교육 정책 · 제도

호주(평생교육 정책 · 제도)

○ 호주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는 6년(1~6학년), 중/고등학교 6년(7~12학년), 대학 3~6년이며,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만 11, 12학년까지 진학함.(의무교육은 10학년 까지임)

○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은 10학년을 마친 후 취업을 하거나 직업훈련 학교인 TAFE에 진학하게 되는데 대학진학 인원보다 훨씬 많음

○ 호주의 평생교육은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계속교육(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의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 호주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1990년대에 교육훈련분야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착수하였

다. 호주는 평생교육의 국가적 목표를 지식과 기술, 정보 경쟁력의 확대에 두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략계획을 개발하였다. 정부는 국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평생교육은 직업훈련과 성인교육을 통합하여 다양한 학습 제공기관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 호주 평생교육 정책의 초점은 모든 호주국민들이 평생교육 기회를 필요에 의해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자 중심의 개방학습 체제를 마련하며,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국가자격으로 연계하는 평가인정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1995년 호주정부는 연방자격체제(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하고 모든 교육 및 훈련을 12개의 국가자격으로 통일시켜 전국적으로 일원화 하였다.

○ 호주 평생교육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 호주는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이전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을 인정하는 학점인정, 직업 및 생활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선행학습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 RPL) 정책을 통해 성인들의 대학교육 진입을 유연하게 만들었다. 호주의 개방학습제도는 개방학습을 통해 학점 인정을 받아 대학 학위나 전문대학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평생학습제도이다.

○ 호주의 정규대학은 성인교육 전문가 양성 및 배출, 성인교육기관 및 시설 종사자·성인 교육자의 재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인교육학 연구자나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성인학습자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을 위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AEPs: Alternative Entry Programs)와 같은 대학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 서비스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과학, 역사, 철학 분야의 대학 수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는 호주의 국립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호주 평생교육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TAFE는 학습자의 규모나 교육과정의 다양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SW주 TAFE의 경우 1천여 개 이상의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직업교육 및 교양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교육기간이나 학습방법 및 평가방식도 매우 탄력적으로,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과정에서부터 1년, 2년, 3년의 학사학위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CAE(Centre for Adult Education)는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지역의 훈련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훈련하고 있다. CAE에서는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데, 성인문해, 성인중등교육 보완 및 대학 진학, 직업준비, 민주시민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개인 취미·자기개발에서부터 취업을 위한 실용적 전문기술 습득, 기술향상·숙련교육, 경제적·사회적·개인적 이유로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의 대입과정 준비교육, 성인대상 특수교육까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TAFE와 CAE를 비롯한 호주 평생교육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성인지역사회교육을 대표하는 호주 내 최상위기관은 호주성인학습진흥원(ALA)인데, ALA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을 각급 성인교육 기관에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성인교육센터(CAE), 지역사

회대학(CCA), 지역주민학습센터, 노동자교육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성인지역사회교육 (ACE)기관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문해, 직업준비, 민주시민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공동체와 주민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뉴질랜드(평생교육 정책 · 제도)

○ 뉴질랜드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학습간의 학점을 유연하게 교환하고 인정하는 국가 자격인정제 운영을 통해 열린교육체제, 통합적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 학습 결과에 대한 학점 수여기관으로는 종합대, 폴리테크닉(기술전문학교), 마오리족 대학(wananga), 교육대학과 같은 대학 기관들과 중등학교, 공공 훈련기관, 사설훈련기관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국가자격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우선 평가인정을 받아야 한다.

○ 평가 인정과 더불어 학점 관리도 체계화되어 있는데, 각각의 단위기준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성취해야 하는 핵심 기능과 지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취득하는 학점은 학습자의 학적기록부에 등록되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한다. 학습자들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수료증(national certificate)이나 국가자격증(national diplomas)을 얻게 된다.

○ 뉴질랜드 정부는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직업, 흥미, 취미 및 여가생활, 원격교육, 학교교육 보완 등 성인의 평생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원한다. 매년 50만 명의 성인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부터 대학 학위를 위한 공부까지 다양한 학

습 활동에 참여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기술과 지식·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민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며 뉴질랜드를 보다 똑똑한 지식기반 경제로 변모시키는 것이 뉴질랜드 정부의 중요한 전략이다.

○ 뉴질랜드 모든 도시에서 주민들은 지역사회교육, 성인교육 (ACE), 여가교육 등의 이름으로 지역 주민센터나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주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교와 기술대학에서도 성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흥미로운 과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 뉴질랜드 공립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민 가까이에서 지역사회 주민센터와 학습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평생교육 기관이다. 뉴질랜드의 도서관들은 도서관 서비스의 교육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학습과 교육 지향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강화와 확대를 위한 정보기술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도서관은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튼튼한 학습 기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과제 해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교육에 관련되도록 하며, 성인교육과 지역사회문화 진흥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통합적 자원의 일원이라는 강한 인식에 근거한 직무 수행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개인 학습을 지원하며, 형식교육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Ⅳ. 방문지 주요 연수내용

캔버라

1. 기본현황 및 연방수도 선정 경위

□ 캔버라의 기본현황

○ 호주유일의 계획도시이자 세계행정수도의 전형

○ 캔버라는 만남의장소라는 뜻의 원주민 언어 '캠버라(kamberra)에서 유래

○ 호주 연방의 수도, 인구 약 35만명, 면적 약 807.7만㎢

○ 뉴 사우스 웨일즈 주(州)에서 분할된 호주 수도 특별지구(시드니 남쪽 290km 지점)

○ 국회 의사당, 대법원, 대사관 등 입법 · 행정 · 사법 등 연방 중추기관 입지

□ 연방수도 선정 경위

○ 1901년 연방정부 수립

○ 1908년 멜버른(당시 임시 수도)과 시드니 사이에 수도 선정 위한 경쟁의 결과, 두 도시에서 멀지 않은 제3의 지역 **야스 캔버라**지역 선정

○ 1911년~1927년 수도건설계획 수립 후 완성(1988년경)

2. 캔버라의 도시계획의 개념

○ 1912년 도시계획안에 대한 국제설계공모전을 열고 미국 시카고의 조경계획가인 월터벌리그리핀의 '안'이 채택되어 캔버라 건설이 시작되어 1988년 도시건설이 완성됨

○ 캔버라는 정치 및 행정도시로 조성하고 그 밖의 주거와 상업, 업무 등 자족 기능 확보에 필요한 시설은 위성도시로 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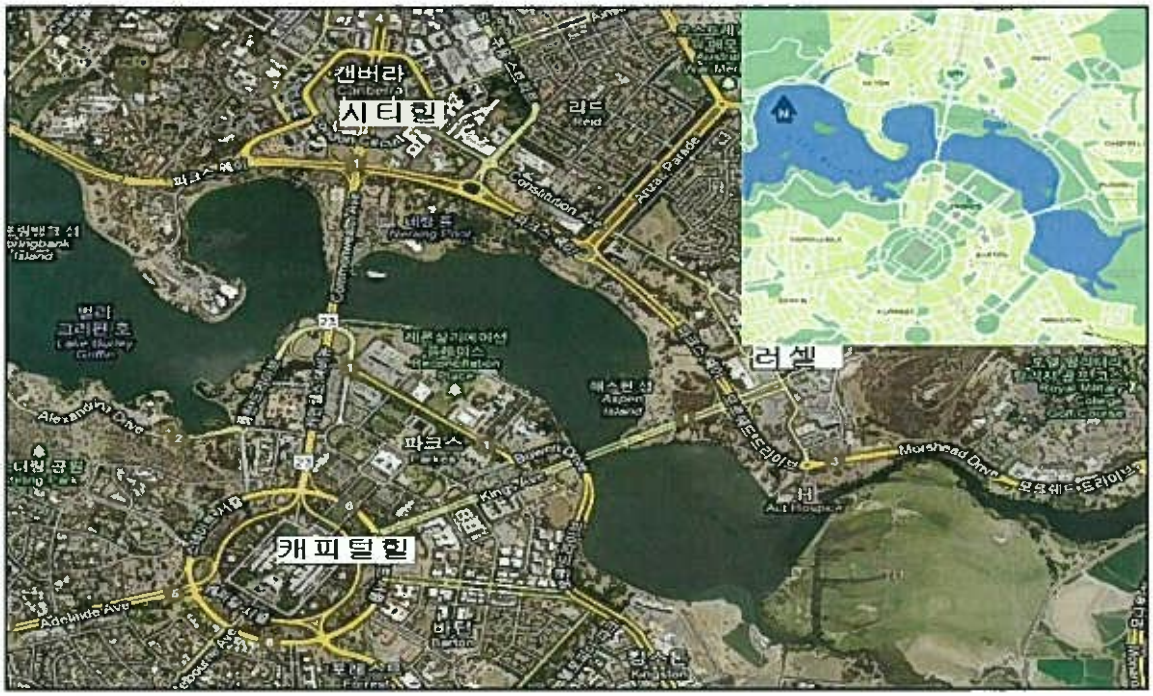
○ 도심 다운타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함

○ 계획인구 : 당초 25,0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1952년 계획인구를 초과하여 국립수도개발위원회(N.C.D.C)에서 2000년대 계획인구 50만명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 도시형태 : 브라질리아(브라질)와 더불어 대표적인 방사환상형의 도시공간 구성으로 크게 3각형 골격 형태

- 그리핀 호수 남쪽(Capital Hill) : 구국회의사당, 최고재판소
- 그리핀 호수 북쪽(City Hill 또는 Center) : 연방정부의 각 부처
- 그리핀 호수 동북쪽(Russel Office)

< 캔버라 공간구조 >



3. 캔버라의 도시계획의 특징

- **국가수도로서 양적 · 질적 도시 여건 조성**
- **미래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토지 공간구조의 계획도시**

□ 도심은 의회와 정부가 분리된 민주주의의 상징을 표현

○ 몰롱글로강을 이용한 인공호수인 벌리 그리핀호를 경계로 행정지역(시티힐)과 의회지역(캐피털힐)으로 분리하여 자연스런 행정부와 의회의 거리감 의미 특히 국회의사당과 정부관공서지역 중간지점에 연방대법원을 만든 것은 도시계획에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

□ **삼각구도(캐피털힐, 시티힐, 러셀지역)의 거점을 잇는 직선도로를 도시발전 축 형성**

○ 삼각구도의 내부는 녹지공간으로 구성하고, 이들 거점들 자체가 방사형구조의 거대한 블럭으로 구성되어 위성도시를 잇는 다운타운 역할 각 거점들에는 중심광장을 기점으로 8~10개의 방사형 또는 바둑판 모양의 대로가 건설되어 각각 2~4개의 위성도시로 연결

□ **캔버라와 위성도시들의 이원적인 구조**

○ 위성도시들이 완벽한 도로망을 통해 20분안에 캔버라 도심에 진입이 가능. 교통여건에 힘입어 캔버라는 철저한 정치 및 행정도시로 조성, 각 위성도시들은 주거, 판매, 생산, 업무 등 도심을 보완하는 독립적인 섹터를 형성.

□ **캔버라의 도시개발 전 과정에는 행정 및 정치중심지라는 컨셉이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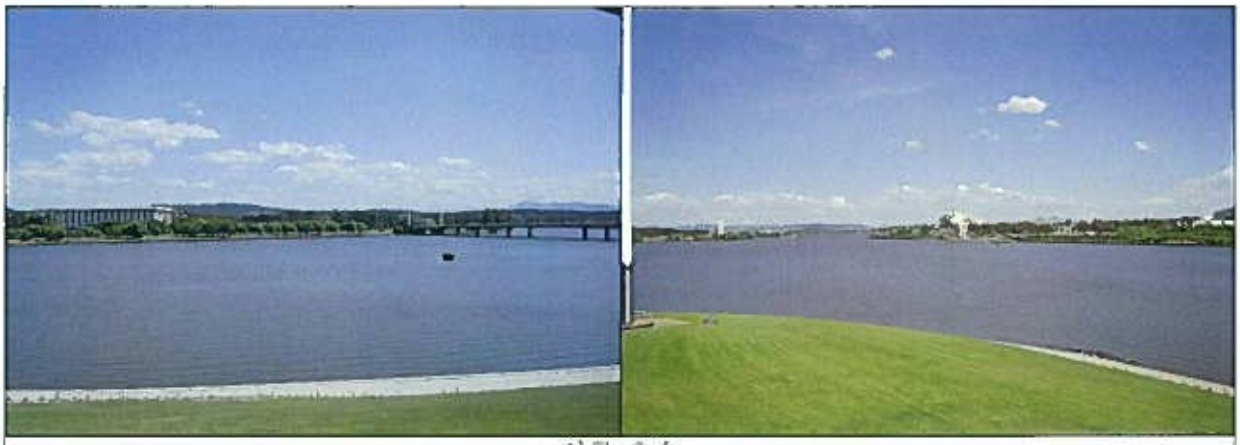
○ 국회의사당을 도심내 가장 높은 곳에 건설,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주변을 압도하는 분위기 연출, 위성도시들의 기능과 도로에서 도심의 종속기능을 유지시킨 점은 주정부보다 높은 연방 정부를 표현한 도시계획상의 기교.

4. 캔버라 주요시설

□ 벌리 그리핀 호수와 캡틴 쿡 기념분수

○ **캔버라를 설계한 건축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인공 호수**이다. 이 호수에는 두 가지 명물이 있다. 첫 번째는 매일 10~12시, 14~16시에 140m의 물기둥을 뿜어대는 캡틴 쿡 기념 분수이다. 이 분수는 캡틴 쿡의 호주 상륙 2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것이다.

○ 또 하나는 호수에 떠 있는 작은 섬 아스펜(Aspen Island)에서 울려나오는 아름다운 종소리이다. 캔버라 수도 50주년을 기념해서 영국에서 기증한 종이라는데,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특별한 기념일에 울린다.



인공 호수

□ 국회의사당

○ 32ha에 달하는 넓은 캐피탈 힐, 그 중에서도 중앙에 자리한 호주의 심장부. 81m 높이의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국기 게양대와 그위로 휘날리는 호주 국기를 보면 호주인들의 자부심이 느껴짐.

○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은 건물 위를 언덕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이는 국가의 일꾼, 즉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의 발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건물 앞 광장의 바닥에 그려진 애버리진 회화작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국회의사당

□ 전쟁기념관(Australian War Memorial)

○ 1941년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보통 사람들의 특별했던 삶을 기억하기 위해 지어진 이 건물에는 **호주군이 참여했던 세계의 모든 전쟁에 대한 기록을 전시**한다.

○ 건물 앞에 붉은 돌로 포장되어 있는 안작퍼레이드(Anzac Parade) 양쪽 옆으로는 각 전쟁마다 참전했던 용사들의 이름과 전쟁의 기록이 남아있다. 가운데쯤에 태극기와 함께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록**도 눈여겨볼 것이다.

전쟁기념관

□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

○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호주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참전을 결정하고 17,164명을 파병하였으며 전사자 339명을 포함한 1,584명이 희생되었으며 통상 7월 27일 6.25전쟁 정전일을 기해 참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 4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준공됨

□ 블랙 마운틴과 텔스트라 타워

○ 시티센터에서 약5Km떨어진 812m 높이의 블랙 마운틴 정상에 솟아있는 195m높이의 텔스트라 타워. 이 탑은 시티 어디서나 보일 만큼 높으며, **캔버라의 랜드마크**가 된 지 오래임

○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면 360도로 확 트인 캔버라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는 2개층으로 이뤄져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면 한 층을 더 올라갈 수 있임.

시드니 총영사관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양주 사무소 개관

○ 설립목적 : 대양주 지역에서의 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지원

○ 연 혁

- 2004. 2.20 : 시드니 사무소 개소
- 2004. 2.20 : 김재균 초대 소장 부임
- 2010. 3. 1 : 시드니 총영사관 통합 운영
- 2011. 3.30 : 제5대 소장(서승우) 부임 (부총영사 겸임)
- 인력현황 : 총 3명(소장, 파견공무원1, 현지전문위원1)

○ 주요기능

- 공무원 연수지원
- 국제회의 참가
- 해외인적네트워크 강화
- 국제교류 지원

시드니 총영사관 방문

□ 참고 사항

○ 한국과 호주의 무역관계

▷ 한국 : 호주의 3대 수출대상국, 7대 수입대상국 (4대 교역대상국)

▷ 호주 : 한국의 8대 교역대상국, 광물자원 수입 1/3 차지

※ 수출 : 2,124억 USD, 수입 : 2,016 USD (2010년)

▷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

○ 한국과 호주의 FTA 진행 상태

▷ 지난 2009년도에 2011년도에 FTA를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ISD의 문제로 현재 보류 상태임 (한국은 ISD 조항을 넣길 바라나 호주는 그렇지 않음)

○ 교민수 증가에 따른 영사관의 역할

▷ 교민수 대비 영사관의 직원 수가 턱없이 모자람. 지난 15년간 교민수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민원 영사 1명과 직원 6명이 그대로 유지됨.

▷ 최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젊은 교민의 유입이 많아 경찰영사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호주의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 고객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정책 사각지대 제로화

▷ 복지지원 창구 단일화로 신속한 정책 추진

▷ 연방정부 중심 정책 추진(취학전 아동보육, 센터링크, 노인복지 등)

시드니 총영사관 방문

시드니 시청.의회

□ 시드니 시청·의회 현황

○ 의회 의원 : 10명

○ 시장(의장) :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 2004년부터 현재까지 3선으로 의장이 시장을 겸임

- 전문경영인 : 모니카 배런(Monica Barone)

○ 공무원 수 : 1,750명 (일용직 113명 별도)

○ 재정상황

- 순 자산 : 66억

* 2009년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23억달러 증가

- 연 수입 : 5억 달러 이상

<무어 시장>

- 2008년에 의회에서 통과된『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커뮤니티 전략 계획에 의거 향후 10년간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 이 계획은 필수 인프라를 유지하고, 시드니 거주자나 사업가, 방문객, 관광객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시 중앙 재개발사업, 그린 스퀘어 타운 기금 조성, 녹색 성장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음.

○ 시청(타운 홀)

- 빅토리아 양식의 사암으로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무려 20년에 걸쳐 완공된 시청사는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는 약속 장소
-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하며, 시청 사무실 외에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8,000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는 매달 한 번 점심시간 콘서트를 통해 무료로 공개

시드니 시청·의회 방문

CITY OF SYDNEY
LOCAL GOVERNMENT AREA

REGIONAL CONTEXT
INNER Sydney

○ 시드니는 전체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드니 시청은 그 중 1 곳을 관할하고 있음.

□ 시드니의 역점적인 환경 정책

○ 물 부족 극복을 위한 대책 추진 - **'물 분산 마스터플랜'**

- 사업목표 : 2006년기준 2030년까지

「물 사용량 10% 줄이고, 수돗물 사용량의 10%를 재활용한 물로 대체한다.」

- 추진방법 : 분산형 하수처리장 운영 (개인 또는 시설별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여 처리한 물을 재활용토록 함), 담수화 공장 운영, 가정별 절수 시설 및 우수탱크 설치 확대 등

- 물절약을 위한 시민 참여

  ▫ 절수기 설치급 : 500,000만 가구 정도

  ▫ 우수탱크 설치 : 49,000가구 정도

□ 물 부족 극복을 위한 정부(호주)의 정책

○ 물 사업 펀드 운영

- 규모 : 20억 달러
- 주요사업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 호주정부의 역점적인 환경 정책 ; 탄소세 전격 시행

○ 탄소세의 개요

- 관계법령 : 클린에너지법
- 시행일 : 2012. 7. (2011. 11. 의결)
- 주요내용
  - ▫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업체(연간 25,000톤 이상 배출) 500개 정도 기업에 대해 3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23달러 부과
  - ▫ 2015년 7월 이후 탄소배출 거래제로 전환

○ 탄소세 시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

- 2020년까지 배출량 5% 감축 (2000년 대비)
- 2050년까지 배출량 80% 감축 (2000년 대비)

○ 탄소세 시행의 의미

- EU이외 지역에서 국가 전체로 탄소세 도입 최초
- 청정국가의 이미지 확대 및 탄소배출거래제 시행효과 선점

□ 시드니 의회의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일부 도입 시행

○ 개요 : 의회에서 시민이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추진방법

- 의회 회의 이전에 사전 신청하여 사전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발언할 수 있고

- 이전에 시민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발언할 수 없음
- 발언에 대하여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음

타우포 지열발전소

○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타우포는 뉴질랜드에서 최대의 호수가 있는 지역이며, 최대의 지열발전소가 있는 곳임.

○ 1958년에 증기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지열발전소로서 현재는 컨택트 에너지에 의해서 운영됨.

○ 건식 수증기를 파이프로 연결하여 터빈을 돌림.

○ 뉴질랜드 전력의 20%를 지열발전소가 담당하고 타우포 지열발전소는 전체 소요전력의 7%를 차지하고 있음.

타우포 지열발전소

로토루아 시청·의회

□ 로토루아시 현황

- 시정부 구성 : 의원내각제형(시장이 시의장을 겸임)
- 시장 : 케빈 윈터스(Kevin Winters)

* 2001년에 의원에 처음 당선되어 현재까지 의원활동 중, 2004년에는 시장을 역임

- 의원 : 12명(시장 제외)
- 공무원 수 : 522명
- 총 자산 : 897,981천달러
  • 수입 : 97,301천달러, 지출 : 104,398천달러

○ 시의원 선거

- 매년 3년마다 실시하고, 2009년 10월 9일에 선거를 실시하였고 다음선거는 2013년 임.
- **로토루아 호수 연합 이사회**에는 4명의 이사 중에 2명을 의회에서 임명

○ 전문경영인

- 시장과 시의원이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시 운영을 맡김
- 전문경영인은 공무원을 고용하고 운영 조직을 구성함.

  * 현재 전문경영인은 피터 구에린(Peter Guerin)으로 기업·소비자과, 기반시설과, 경제·규제과, 마오리과, 홍보소통과, 인사과, 총무과로 구성

- 지난 2년간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피터 구에린은 연봉 인상이 없었으나, 시 의회의 피터 구에린에 대한 평가는 뛰어난 리더십과 경영능력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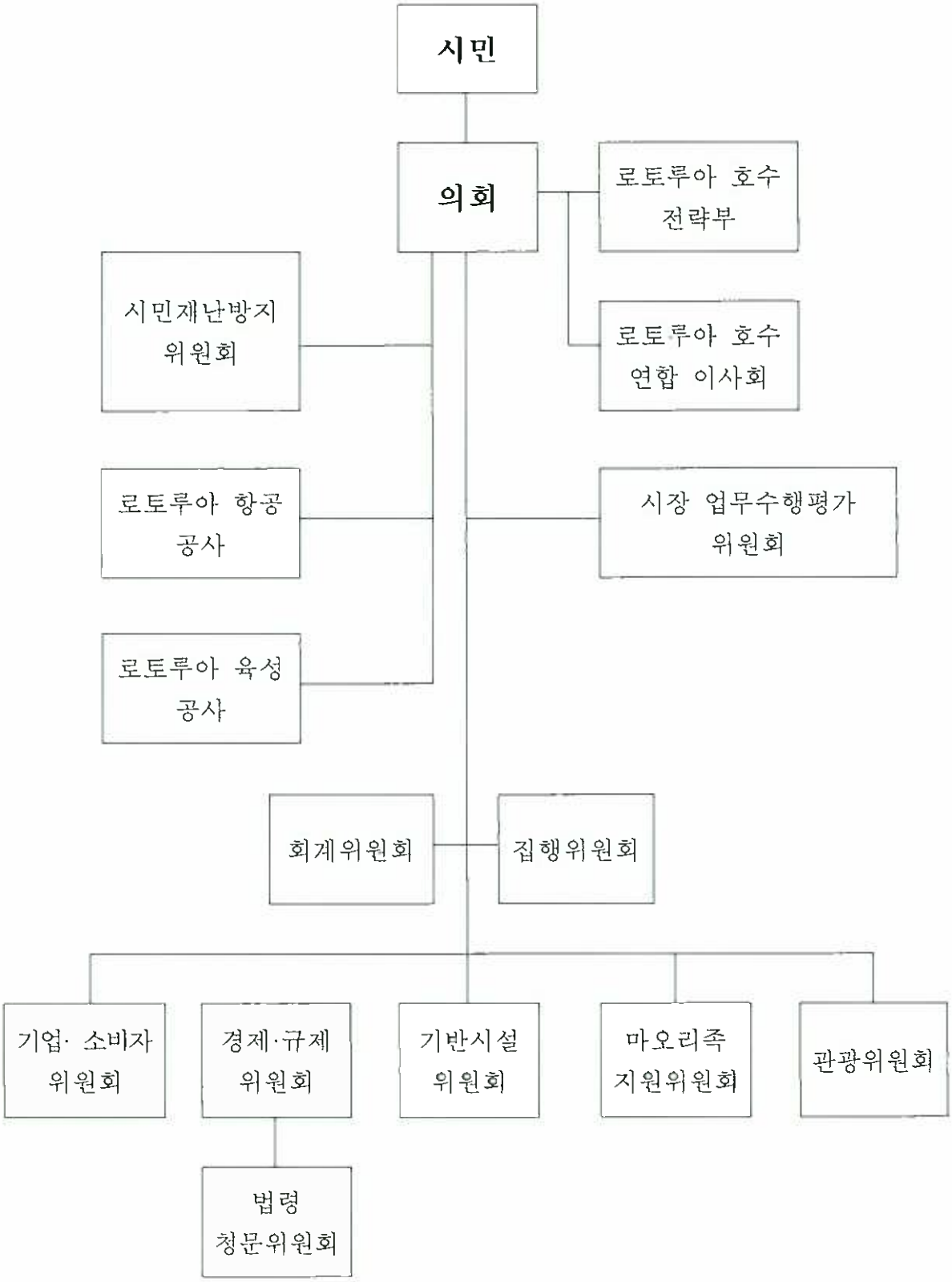
○ 청소년 의회

- 구성 : 13세~18세의 청소년 17명

  * 종교, 나이, 연고, 성별과 경험을 고려하여 구성

- 임무 :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지역봉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슈 논의 및 각종 정보 교환
- 효과 : 리더십 향상 및 의회 업무 체험, 애향심 고취, 인적 교류

○ 의회 구성도


시민
의회
로토루아 호수 전략부
시민재난방지 위원회
로토루아 호수 연합 이사회
로토루아 항공 공사
시장 업무수행평가 위원회
로토루아 육성 공사
회계위원회
집행위원회
기업· 소비자 위원회
경제·규제 위원회
기반시설 위원회
마오리족 지원위원회
관광위원회
법령 청문위원회

< 시의회 의원>

로토루아 시청·의회

V. 시사점

☞ 계획도시 캔버라

캔버라(Canberra)는 호주 유일의 계획도시이자 세계 행정수도의 전형으로, 각 주마다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 정치, 문화 등 제한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도시로 계획되어, 도시성격이나 기능, 설계기법 등에서 여타 도시들과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음.

캔버라는 처음부터 허허벌판의 내륙평원에 인공적으로 세워졌으며. 캔버라는 인공적인 행정수도의 또 다른 예인 브라질리아와도 차이를 보이는데, 브라질리아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채 5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건설된 도시인데 비해, 캔버라는 수도유치를 위한 주정부들의 갈등이 낳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80년이 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건설된 도시임.

주목할 만한 점은 캔버라 개발기간동안 수많은 계획수정이 있었음에도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은 전혀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며, 그 일관된 방향은 캔버라를 철저한 정치 및 행정도시로 조정하고 그 밖의 주거와 상업, 업무 등 자족기능 확보에 필요한 시설은 위성도시로 분산한다는 것으로, 이는 도심의 팽창으로 수도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위성도시들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관대한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임.

발족할 당시 인구는 39,000명에 불과하였으나, 수도의 기능이 완성된 1989년에는 278,000명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35만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캔버라에 적용된 철저한 기능구분, 정치 및 행정수도로서의 성격 규정에 따른 도시팽창억제와 위성도시 육성정책에 힘입어, 캔버라 고유의 쾌적성과 여유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있으며, 이점이 캔버라가 세계 행정수도의 표본으로 부각된 가장 중요한 이유임.

○ 하지만 중앙정부기관이 산재되어 있음으로해서 행정기관간 커뮤니케이션 부조화

○ 행정기능과 업무·상업기능, 주거기능이 독립되게 계획됨으로써 도시생활의 단절이 초래되어 도시의 활력이 부족

- 주간·야간 사람활동특성을 미고려 함으로써 업무·상업지역내 야간 공동화 발생→범죄 발생→ 야간공동화심화의 악순환 초래
-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선호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 자동차 중심의 도시라서 간선도로가 호수변을 가로막고 있고, 도시내 주요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시설 미흡하여 보행자가 접근하기 곤란

○ 도시를 산발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도시기능 발휘에 문제점 발생, 인구유입 저해요인 됨

- 도시주요기능위주의 집중개발이 필요

○ 자연하천을 막아 인공호수를 개발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점은 상당히 돋보임

○ 도시내 산업이나 생산시설이 없어 자족기능 발휘에 문제점이 있어 보임

☞ 시드니 및 호주의 환경정책

□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 국가가 물 사업 관련 펀드를 운영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선도하고

○ 지방에서는 물의 재활용과 절수 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수탱크 설치 및 절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

실을 강조함으로써 물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호주는 최근 10년여에 걸쳐 극심한 가뭄을 경험한 지역이므로 물 부족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체감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국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확산에 따라 물 절약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컸음.**

□ 탄소세 전격 시행

○ 호주는 전력생산의 80%를 석탄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1인당 탄소배출량이 27.3톤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세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5년 2월에 발효된 도쿄의정서의 채택을 거부하였던 국가였음

○ 그리고 현재 총리인 길라드마저 탄소세 시행을 반대하였으나 2011년 관계법령인 클린에너지법을 제정하여 2012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탄소세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중에는 전직 총리가 광업과 관련하여 환경세 부과 시행을 반대하는 여론의 역풍을 맞아 현재 길라드 총리에게 자리를 내어 줄 정도의 분위기 였으며, 기업이나 국회 등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줄기차게 설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탄소세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음

○ 탄소세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호주 정부의 노력으로는

- 법안 제출 이전에 서민 밀착 친환경정책 선행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 가정 경제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 마련으로 서민경제 부담 경감
-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 현장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국민 설득

○ 전격적인 탄소세 시행은 호주를 청정에너지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시

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정환경 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대는 물론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한 효과를 올린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지구온난화현상은 오늘날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심각한 문제임.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음.

☞ 시드니 시청의 장기 프로젝트 수립

□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젝트 수립

○ 향후 25년간 도시 발전을 이끌 장기계획으로서 후세에게 살기 좋고,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수립하였음.

○ 시드니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특정계획 및 프로그램과 함께 시드니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2007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에 공표되어 실행되고 있음.

○ 19세기 산업혁명이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앞으로는 새로운 녹색혁명이 21세기를 변화시킬것으로 예측한 이 장기 프로젝트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건물 배출(building emissions), 수송과 에너지의 세가지 측면에서 10가지 목표와 각 세부 추진전략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 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주민, 현지 기업인, 법조계, 정치인, 문화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이벤트, 전시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도 실시하였다.

○ 우리 세종시도 단기적인 도시개발전략에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함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세종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세종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사회 문화적 특색

□ 가족중심

○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가정으로 돌아가 가사를 돌보고 가족과 함께 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직장 동료들의 회식 모임을 저녁에 하지 않고 아침에 조찬 모임으로 하고 출근할 정도임.

□ 레저생활 선호

○ 요트, 보트, 수상스키, 낚시, 골프 등을 즐김

○ 꼭 갖고 싶은 3대 필수품 : 집, 자동차, 요트 또는 보트

□ 건강관리의 생활화

○ 매일 조깅 또는 산책, 주말 골프, 노인들은 게이트볼 필수

□ 개인의 능력 중시

○ 개인의 프로필(이력서) 작성시 우리나라와 다른 중요한 3가지가 있음. 성별구분과 나이를 표기하지 않고, 사진을 부착하지 않음

○ 이 사실은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 무엇보다 능력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판단됨

Ⅵ. 연수후기

■ 부의장 김선무의원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대응전략 마련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적도를 지나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 뉴질랜드로 첫 국외연수를 떠났다.

흔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이고, 이민갈 나라로도 선호되는 나라이다. 과연 호주와 뉴질랜드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선 호주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지닌 석탄, 우라늄, 철광 등을 캐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2차 산업으로 인한 발전을 이루기 보다 1차 산업인 농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관광, 교육)에 목적을 두고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었으며,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경제규모 12위로 올라섰다.

뉴질랜드도 호주와 같이 1차산업과 3차 산업이 발달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목축과 낙농업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환경 보호의 선진국이다. 또한,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11년 국가별 청렴지수에서 뉴질랜드가 1위를 할 만큼 청렴 선진국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정부가 먼저 구성된 후에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지방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물론 영국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같이 지방정부도 시의회 의장이 시장을 맡는다. 또한 우리가 견학한 로토루아시는 시장이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 시정의 책임을 맡김과 동시에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를 견학하는 것 못지 않게 세종시의원으로서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역시 호주의 행정수도인 캔버라였다.

호주는 1901년 호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멜버른과 시드니라는 두 개의 대도시가 수도의 자리를 놓고 충돌하였다. 1908년 두 도시가 타협을 하여 함포사격에 위협이 되는 해안도시가 아닌 비록 시드니에 가깝지만, 멜버른과 시드니 사이의 내륙에 입지를 선정한 곳이 캔버라이다. 호주의 원주민인 에버리진(aborigine)들의 방언인'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에 걸맞는 이름이다.

세종시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확정된 후에 위헌판결, 수정안 논란 등 많은 우역곡절 끝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시작하였다.

비록 태생적으로 캔버라와 세종시가 다르지만, 허허벌판에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인 점은 같다. 특히 도시설계도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한 환상형으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원이라는 점이 비슷하다.

하지만 캔버라는 문화와 행정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라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주말에는 유령도시로 변한다. 이 점은 우리 세종시도 단순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는 세종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1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서는 국무총리실 등 36개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새 둥지를 틀지만 공무원들은 아직도 이전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며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거나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극과극의 평가를 내렸다.

캔버라에는 연방정부와 국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도시가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세종시는 국회는 물론이고 중앙행정기관도전부 이전하지도 않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행·재정적 특례와 정부의 지원과 자족기능 강화를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충청권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네트워크형 거대도시권으로 형성되어 국가 중추 행정 및 과학기술의 전국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져 대전-세종-청주-천안으로 연결되는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가 될 것이다. 또한 인근 지역간 경쟁이 아니라 협

력과 기능분담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것이다.

■ 이윤호 사무관

우리 연수단 일행은 자연 경관이 빼어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호주와 뉴질랜드로의 출장을 위해 12시간 정도나 걸리는 긴 시간동안 많은 기대를 하며 생산적인 연수를 다짐했다.

과연 호주와 뉴질랜드는 참으로 부러운 땅,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아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환경보호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었다.

좁은 영토임에 불구하고 세계속 무한경쟁에서 힘차게 버티며 나름대로의 성과와 자존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넓은 초원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부러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자국민 최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을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수요 이외의 물량이나 그 이하의 품질에 한해 수출하고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은 경제성장을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 또한 부러움이 아닐 수 없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복지 정책은 많은 부문에서 선진화 되었다고 하나 그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 형편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개선이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리의 제도나 시책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환경정책중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EU지역 이외의 세계 최초의 탄소세 도입의 전격 시행은 우리나라의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구촌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과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반면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으니 주저함 없이 탄소배출권 시행에 대비한 다양한 준비에 바로 착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다만, 근시안적인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국가대계의 차원에서의 현명한 판단아래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결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는 없겠지만 호주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이해설득과 이해가 상충되는 국민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합의점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 관련 호주의 선진적인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장려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시드니의 물 관리 프로젝트는 우리 세종시에서도 나름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회성·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국비 확보 또는 자체사업비 만으로라도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절수기 설치나 우수탱크 설치를 장려하고 물 절약 또는 물 재이용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종시가 선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 값이 너무 싸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담배 한 갑의 값은 10,000원 ~ 15,000원 정도라고 했다. 이유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OECD 국가중 담배값이 제일 싼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니 충격적이었다.

그만큼 건강을 위해 금연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끽연가들은 흡연권을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 제일이 담배 값을 필요이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는 주장하고 있으나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담배값 인상은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상당하게 낮추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한다.

철없는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흡연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담배값 인상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분명히 매력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움이 많은 나라였다. 그러나 향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하여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천연자원의 혜택으로 국가 재정이 풍족하여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천연자원 중심의 기제로는 분명히 사회 발전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여 호주 입국 수속을 할 때의 분위기는 마치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으니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다 해서 또 다시 호주를 방문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듯 했다.

복잡하고 지연되는 입국 수속 절차를 도와주고자 하는 서비스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뉴질랜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인천공항의 서비스를 떠올리니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방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지적한 상황이 다름 아닌 깨진 유리창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시작된다면 그 후에 벌어질 일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까?

선진국을 연수하면서 그 나라의 좋은 점과 배울 점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접목시킬 것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선진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분들이 8일간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가슴에 담아두고 우리시와 우리나라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들을 두고두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서종선 주무관

호주, 뉴질랜드 공무국외 출장(6박8일)을 위하여 우리 연수단 일행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이국의 땅 호주와 뉴질랜드에 12시간의 좁고 불편한 기내 좌석에 의지하여 장거리 비행 끝에 지구 저편인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땅 호주에 도착 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시드니 공항에 내리지마자 4시간의 버스를 타고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를 견학했다.

호주 캔버라는 세종시와 닮은 점이 많았다. 세종시와 같이 전형적인 계획도시이다. 그리고 물과 숲, 행정기관으로 잘 조성된 호주의 행정수도 캔버라는 인공호수(벌리 그린피 호수)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꾸민 것도 세종시의 호수공원을 연상케 한다.

캔버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원같은 느낌을 받았다.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나무가 많은 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행정 중심도시가 되는 바람에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제고해야 하겠다.

호주의 시드니 서쪽 약 100km 지점에 있는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의 기암인 세자매봉, 경사50도의 궤도열차 등을 견학하고,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 항과 코발트 빛 바다가 어우러지는 오페라하우스, 왼쪽에 하버 브릿지, 도시 곳곳의 공원의 조화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는 차로 3~4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는 초원,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 청정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자연환경과 드넓은 목축업과 과일재배, 조림사업등 1차 산업을 발전시켜 선진국이 된 나라다. 손꼽히는 문화유적은 없지만, 뉴질랜드를 세계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국민소득을 높이고, 깨끗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실로 놀라웠다.

와이토모 동굴, 로토루아의 레드우드 수목원, 온천수가 20~30m씩 하늘로 분출하는 지열지대 테푸이아, 아그리돔 등을 견학하면서 손꼽히는 문화유적 하나 없이도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든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가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뉴질랜드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니 몹시 부럽기도 했지만, 역사깊은 문화유산과 명소를 가진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이를 통해 선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을 견학하면서 정치, 경제, 관광,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거리가 있었으나 훌륭한 점은 벤치마킹 해서 세종시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를 마치면서 우리 일행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연수를 마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세상 밖 더 큰 세상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 전성수 주무관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이후 의회에서 처음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외 출장을 비교적 짧은 6박 8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다.

세종시는『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벤치마킹과 사례를 연구하여 세종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간 곳은 지구 반대편 호주와 뉴질랜드이다.

호주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지하자원·곡물 등 1차산업과 교육·관광 등 3차산업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GNP)이 6만달러가 넘어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의 경제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일만큼 다른 선진국과 달리 경제 펀

드멘털이 튼튼하다.

또한 뉴질랜드도 1차 산업인 목축과 낙농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농업이 뉴질랜드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인 만큼 농부들도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스스로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이 두 나라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같은 지리적 요소가 있었지만, 뛰어난 복지, 환경보호, 교육과 관광, 정치제도 등 우리나라 보다는 많이 앞서 있었다.

특히 시드니 시청은『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후세에 살기 좋고,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시드니 시의 다양한 지역사회 내에서 장기간의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20년 뒤의 비전을 Green, Global, Connected City로 세웠다.

즉 2030년까지 시드니시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시드니의 미래를 위한 몇가지 특정계획 및 프로그램과 함께 시드니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공표하여 실행되고 있다.

주로 도시건축가 및 도시디자이너 분야 전문가 그룹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전략계획팀이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 계획, 회계, 기술설계, 토지나 건물, 예술,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계획수립 과정은 광범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의해 지역주민, 현지 기업인, 법조계, 정치인, 문화인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연령대로 이루어진 현지 대표자들에게 전달되어 논의된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지만, 시드니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시민들이 세종시 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세종시민이 세종시를 만든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세

종시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순한 방향 제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과 구체성을 함께 고려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최홍규 주무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공무국외 연수를 실시하고 느낀 점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발전시켜 1차 산업인 농업, 그리고 3차 산업인 관광 등으로 국민소득을 높이고 있다.

호주에는 단풍이 없다고 한다, 호주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단풍을 보고 아름다움에 극찬을 한다는 말을 가이드로부터 듣고, 우리나라도 해외 관광객 유치시 급속도로 발전한 대한민국상만 보여 줄 것이 아니라,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산과 바다, 시골풍경을 보여주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했으면 한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를 방문하고 느낀점은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고층 아파트와 화려한 건물들이 아닌 자연과 하나된 시청, 관공서를 보고서 세종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도시로 건설됐으면 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 세종시를 건설하고 세계인들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코스 개발이 중요함을 느꼈다. 현재 세종시에는 호텔 등 관광객들의

숙박 시설이 없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시와 인근도시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대전, 천안, 공주, 청주와 연계된 2박 3일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백제의 얼이 서린 공주, 새롭게 건설되는 세종시, 온천으로 유명한 대전을 같이 관광 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개발했으면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연환경이 좋은 나라이며,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도 적고 자연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8일간 연수를 마치고 다시한번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나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